



**FINAL  
REPORT**

**국제사회적경제포럼  
GSEF  
2018 백서**



**BILBAO2018**  
GLOBAL SOCIAL  
ECONOMY FORUM

사회적경제와 도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가치와 경쟁력

제목 국제사회적경제포럼 GSEF2018 백서

자료 및 사진 GSEF2018 조직위원회 및 GSEF사무국

인쇄 디자인 Design Gem

이메일 gsef@gsef-net.org

홈페이지 www.gsef-net.org

2018년 12월 서울에서 초판 인쇄

Copyright © Global Social Economy Forum



**BILBAO2018**  
GLOBAL SOCIAL  
ECONOMY FORUM

# 환영사

**전** 세계에서 오신 귀빈과 참가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80여 개국 도시정부 대표와 사회연대경제 관계자, 그리고 유엔 기관 대표들이 2018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에 참석하기 위해 이곳 빌바오에 모였습니다.

국제사회적경제포럼은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에 매진하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사회연대경제가 효과적인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 특히 사회연대경제 주체들과 손잡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전략을 구축해 나가는 정부가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시민의 요구와 염원에 부응하는 전략이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 주체 간의 굳건한 협력은 미래의 열쇠입니다.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는 도시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더 큰 몫을 담당하기 위해 힘쓰며, 도시는 이를 적극 지원합니다. 2018 국제사회적경제포럼의 주제 **“사회적경제와 도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가치와 경쟁력”**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급속한 경제 변화, 사회 변화, 환경 변화의 시대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함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야 합니다. 빌바오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공동실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활동 부문과 조직의 유형, 그리고 실행 수단을 불문하고 모든 관련자가 공동으로 정책을 구축하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공동실행과 공동소유를 통해 경제가 공익을 위해 봉사하게 하고 사람을 수익보다 우선시한 것은 사회연대경제의 성공 전략이었습니다.

2018 국제사회적경제포럼이 열리는 사흘 동안 우리의 활동과 에너지를 새롭게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공인된 사회연대경제 부문의 세계적 모임을 통해 끊임없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이 포럼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10** 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GSEF2018 빌바오포럼에서 정부 대표와 시장, 시민사회단체와 국제기구 대표, 사회적경제 전문가 등 1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자리를 함께 합니다. GSEF2018은 올해 빌바오에서 열리는 많은 행사 가운데에서도 아주 특별한 행사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빌바오는 **“사회적경제와 도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가치와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GSEF2018 빌바오포럼 개최를 통해, 지난 3차례의 포럼이 열렸던 서울, 몬트리올과 함께 사회적경제 분야의 국제네트워크에 동참합니다. 국제사회적경제포럼이 유럽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속가능성과 포용에 기반한 성장모델을 지지하는 빌바오의 정책 의지를 시사합니다.

실제로 빌바오는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기업이 정신에 뿌리를 두고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선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빌바오, 가치의 도시 (Bilbao, the City of Values)’와 ‘빌바오를 위한 사회협약(Social Pact for Bilbao)’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타 공공서비스 및 정책과 함께, 모든 차원에서 화합하고 연대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의 의지를 반영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또한 빌바오의 특징으로 자리 잡은 사회적경제 모델, 즉 협동조합주의의 도입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응집력을 갖게 된 바스크 사

회만의 독특한 성격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사흘에 걸쳐 우리는 참가자 여러분들과 빌바오의 경험을 공유할 것입니다. 빌바오의 모델, 교훈, 모범 사례들이 우리가 제도적, 사회적, 사업적 관점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 모델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GSEF2018 빌바오포럼의 개최도시로서, 이 포럼이 더욱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 다시 말해 사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세 부문(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주체가 협력하는 실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후안 마리 아부르토  
빌바오시장

## 목차

환영사	5
개관	8
GSEF2018 준비과정	10
숫자로 본 GSEF2018	23
전체 세션	30
세션1. 사회적경제를 위한 지원: 일시적 유행인가 진정한 의지의 표현인가	33
세션2. 도시 중심 시대에서의 사회적경제	35
세션3. 사회적경제를 위한 약속: 다양한 대륙별 시도	38
세션4. 도시와 협력	42
세션5. 사회적경제를 통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46
주제별 세션	50
1. 공공정책 공동 수립 및 실행	51
2. 지역 변화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기여	55
3. 사회적경제 기관의 성장을 위한 도전 과제	60
4. 일자리와 고용의 미래: 사회적경제의 역할	63
GSEF2018의 성과와 유산	68
선언문	73



# 1.

## 개관

**제** 4차 국제사회적경제포럼 GSEF2018은 빌바오시와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가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여러 사회적경제 활동 부문을 대표하는 네트워크들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2018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스페인 빌바오에서 개최하였다.

본 백서는 GSEF2018의 준비와 진행, 그리고 주제를 정리한 최종보고서이다.

### GSEF2018의 목표

- 도시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수립된 전 세계 공공정책의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 사회적경제의 핵심 가치를 고려하여 경쟁력의 성공 요인을 알아본다
-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국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주체 간 협력의 기회와 문제점을 파악한다.
- 사회적경제를 널리 알리고, 특히 사회적경제가 공공부문, 시민사회,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네트워크와 그 임무 수행 역량을 강화한다.

본 백서는 먼저 GSEF2018 준비 과정의 주요 이정표를 짚은 다음, 참가 현황과 행사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결과를 소개한다.



다음으로는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개괄하는데, 주요 현안에 관한 토론이 벌어졌던 전체 세션과 포럼의 중심 주제 및 부주제별로 정리한 이니셔티브의 발표 워크샵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장에서는 빌바오시의 유산으로 남은 포럼의 성과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있다.

# 2.

## GSEF2018 준비과정

### GSEF2018 조직위원회

**20**16년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3차 국제사회적경제포럼에서 빌바오시가 제4차 포럼 개최 도시로 선정된 후, 빌바오 시의회는 빌바오 포럼이 사회연대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연결과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빌바오시의 정부, 기관, 민간, 시민, 기업이 모두 함께 협력하는 것을 추구하는 빌바오시의 '가치의 도시(바스크 지방 공식언어인 바스크어로 Bilbao Balioen Hiria)'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이번 포럼을 기획 및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빌바오시는 2017년 초 사회적경제 단체 대표들과 정부 기관 및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들이 한자리에 모인 회의를 열고 제4차 국제사회적경제포럼의 주최를 전하면서 시의회와 함께 포럼 개최를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위원회 수립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큰 호응을 얻었으며, 그 자리에서 2017년 2월 6일 GSEF2018 조직위원회 수립이 합의되었다.

조직위원회 구성:

정부

바스크 정부 노동정의부 사회적경제국

바스크 정부 고용사회정책부 사회복지부문

비스카야 주의회 사회활동부

바스크 지방 지자체 연합(EUDEL)

몬드라곤 시의회

빌바오 인터내셔널(Bilbao Ekintza)/빌바오 시의회

사회적경제 단체

KONFEKOOP - 바스크 협동조합연맹

ASLE - 바스크 노동자소유 및 참여기업협회

SAREEN SAREA - 바스크 제3섹터 네트워크

REAS Euskadi - 바스크 대안연대경제 네트워크

EHLABE - 장애인사회노동통합기업협회

GIZATEA - 바스크 사회적통합기업협회

조직위원회는 빌바오 시의원 (사회적경제 담당) 사비에르 오찬디아노(Xabier Ochandiano)의 감독하에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단체들, 그리고 GSEF 네트워크와 상시 긴밀하게 협력하여 GSEF2018 포럼을 준비하는 업무를 빌바오의 경제적, 사회적 부의 창출을 증진하는 빌바오 시의회 산하 단체인 빌바오 인터내셔널 (바스크어로 Bilbao Ekintza)에 위임했다.



폐회식에서 조직위원회에 감사패 전달



GSEF2018 포럼의 규모를 고려할 때, 조직위원회에서는 학술사무국과 실무행정 역할을 담당할 단체와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입찰 과정을 거쳐 컨설팅 기업 LKS가 학술사무국으로, 이벤트 회사 에벤티아(EVENTIA)가 대행사로 선정되었다.

학술사무국은 포럼 내용의 구성, 연사 섭외, 커뮤니케이션 조정, 정보 작성과 보고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한편, 에벤티아는 연사, 패널, 초청자에 대한 초청업무를 전담하여 지원했다.

2017년 7월부터 본격적인 조직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어 회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학술사무국에서 포럼의 중심 주제와 기본 구성에 관한 첫 번째 제안을 준비하여 제시한 것을 시작으로, 학술사무국이 세부 구성과 제안서 모집, 이니셔티브 선정 등 행사 준비에 필요한 모든 활동에 관해 제안서를 준비하였다. 이후 빌바오 포럼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공유 및 토론을 거쳐 결정이 나는 공동업무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일련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준비 과정을 진행시킨 조직위원회는 포럼 준비의 구심점이었다.

조직위원회는 2017년 2월 발족회의부터 2018년 10월 포럼 개최까지 총 15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조직들과 꾸준히 연락을 유지했다.

그 밖에도 조직위원회는 현장 탐방을 조직했다. 다양하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원들이 각자가 속한 기관과 네트워크를 동원했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했다. 현장 탐방은 포럼 참가자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는 이전 총회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 단체 및 협력단체 등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포럼의 홍보와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조직위원회의 노력은 여러 관점에서 크게 성공적이었다.

포럼 폐회식에서 김정열 GSEF 신임 민간공동의장이 조직위원회의 노고를 기리는 감사패를 각 구성원에게 수여하면서 조직위원회 모두의 공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 GSEF 사무국과의 협력

조직위원회와 함께 빌바오 인터내셔널은 GSEF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와 여섯 차례의 스카이프 회의를 갖고 협력했다. GSEF 사무국은 GSEF 네트워크 회원과 파트너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포럼 내용을 논의·발전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사무국은 지난 포럼들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여 빌바오가 이전 포럼과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GSEF 사무국은 아프리카, 청년,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 3개의 주제별 세션 뿐 만 아니라 포럼 첫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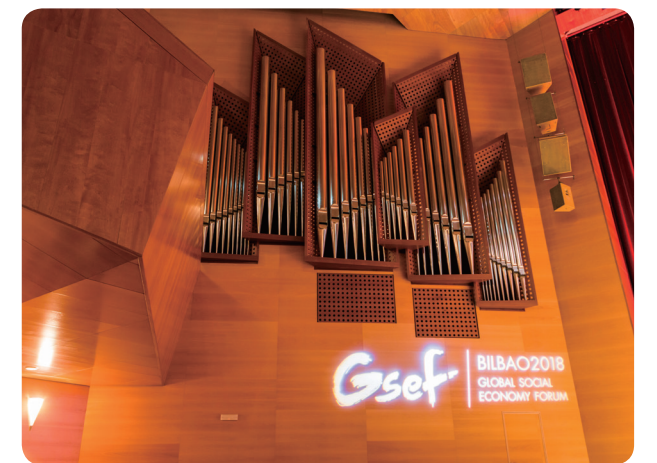


10월 1일 개최된 청년 세션

열린 청년 페스티벌을 주관했으며, 세션 연사로 참가한 청년참가자들 외에 빌바오 시 및 주변 대학생들과 지역 주민들도 사회적경제 부문의 이니셔티브와 경험을 공유하도록 초대했다.

### 장소

행사의 규모를 감안할 때 GSEF2018은 처음부터 많은 수의 참가자 및 연사의 참석이 예상되었고(이전 포럼인 GSEF 2016의 참가자 수는 약 1,500명이었음), 다양한 행사 활동에 걸맞은 여러 가지 형태의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위치, 연결성, 인프라를 고려하여 여러 후보지를 방문하고 신중한 분석을 마친 후,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워크숍 세션에 필요한 다양한 회의실과 공간을 보유한 에우스칼두나 전시장 (Euskalduna Jauregia Conference Center)로 최종 결정되었다.



1999년 2월 19일에 문을 연 에우스칼두

에우스칼두나 전시장



에루스칼두나 전시장 외관

나 전시장은 21세기의 새로운 발바오를 대표하는 매우 특별한 건물이다.

총 2,16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에서 개회식과 폐회식, 그리고 전체 세션이 열렸다.

이니셔티브 발표 워크숍 세션, 패널 토론, 회의 등 기타 행사는 에우스칼두나의 5개 회의실 (A1, A2, A3, A4 그리고 E홀)에서 열렸으며, 그 밖에도 공용 공간과 네트워킹 공간에서 부대 행사가 진행되었다.

### 명예위원회와 자문위원회

GSEF2018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하고 행사를 홍보할 방대한 지역 네트워크와 국제적 전략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핵심 기관 및 인물들로 구성된 명예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수립이 제안되었고, 이에 2018년 2월, 전 세계 사회적경제 부문의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총 51명의 위원(명예위원회 35명, 자문위원회 16명)으로 구성된 두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양 위원회는 다양한 성격의 사회적경제 부문과 대륙의 대표성을 염두에 두고 구성되었으며, 유럽과 바스크 지방에 특히 가중치를 두었다.

학술사무국의 지원을 받은 빌바오 인터내셔널 실무팀은 이니셔티브와 내용 선정 업무의 진척 상황을 양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들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했다.

양 위원회는 전체 세션 연사 섭외를 지원하고, 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직접 연사로 참여하는 등 행사 준비에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 중심 주제와 4개 주제

GSEF2018의 중심 주제 결정은 가장 의미 깊은 포럼의 이정표다. 학술사무국이 최초로 제안한 중심 주제와 부주제는 2017년 7월 조직위원회에, 같은 해 9월에는 GSEF 운영위원회에 제시되었다. 일

정 기간 논의를 거치고 피드백을 취합한 후, 2017년 11월 중심 주제와 부주제가 확정되었다. 포럼의 중심 주제로 **사회적경제와 도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가치와 경쟁력(Social Economy and Cities: Values and competitiveness for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local development)**으로 정해졌다.

중심 주제는 사회연대경제(Social Solidarity Economy)의 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주체들의 국제협의체인 GSEF가 역점을 두는 사회적경제와 도시를 주축으로 하며, 4개 주제를 통해 구체화되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두고 유럽과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토론의 중심이 되는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유럽연합과 많은 중앙·지방 정부가 공동의 부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모델의 역할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선진국이라 여겨지는 나라와 사회에서조차 불평등이 확산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사회적경제 모델은 먼저 경제활동과 부를 창출한 다음 그것을 분배하는 성장모델이 아니라 부가 생성된 활동의 장 내에서 부를 분배하는 모델이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해 수익을 배분하여 보다 제한적인 이윤 재분배 정책이 가진 역기능을 최소화한다.

사회적경제는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던 시기에 실업률 상승을 억제하는 대단한 역량을 보여주었다. 비록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보다 투명하고 지속가능하며 책임감 있는 사회적 및 경제적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빌바오시가 위치한 유럽의 관점에서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적경제가 필요하다면 기존 경제 모델의 확립된 게임의 법칙에 맞춰 변화하면서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위한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실행 가능한 활동 분야를 구체화한 지역발전 모델을 제안하여 도시와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널리 알려 전 세계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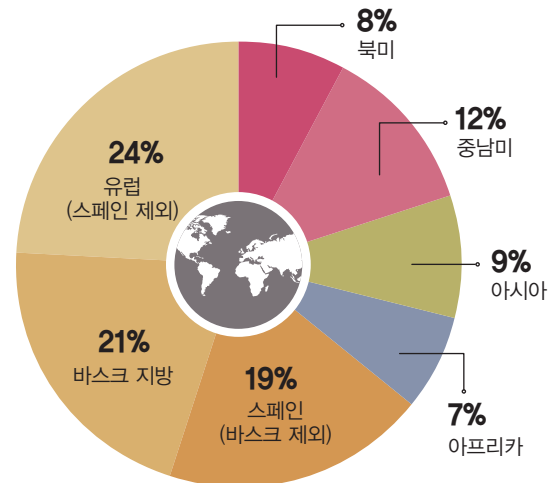
### 포럼 웹사이트

중심 주제 및 부주제 선정과 함께 GSEF2018 홍보용 로고 디자인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포럼 웹사이트 GSEF2018.org를 통해 포럼 정보가 공유되었다.

2017년 11월 9일, 웹사이트의 첫 번째 버전이 공개됨과 동시에 ‘날짜를 저장하세요(Save the date)’ 캠페인이 영어로 진행되었다. 이후 웹사이트는 다른 두 개의 GSEF 공식 언어(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 번역되었고, 이후 바스크어(바스크 지방 공식 언어)도 추가되었다.

### 제안서 모집

제출지역	제출건수
아프리카	37
아시아	53
스페인(바스크 제외)	104
바스크 지방	117
유럽(스페인 제외)	135
북미	45
중남미	69



이번 포럼에서는 이니셔티브 발표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로, 2017년 12월 20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GSEF2018을 위한 사회적경제 이니셔티브 제안서 모집이 시작되었다. 애초 제출 마감기한은 2018년 2월 28일까지였으나, 이후 3월 23일까지 한 달 가까이 연장되었다.

총 64개국에서 560개의 이니셔티브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접수된 이니셔티브의 수가 너무 많아 학술사무국이 주제와 부주제에 부합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제출했는지(모든 대륙이 GSEF2018에서 동등하게 대표되도록), 그리고 제출한 단체의 유형을 기준으로 1차 평가를 실시했다.

1차 평가 결과는 2018년 4월 말에 공유되었으며, 조직위원회와 GSEF 사무국이 1차 선정을 마쳤다. 하지만 포럼의 일정이 2일 반에 불과한 점과 4개의 세션을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총 108건을 초과할 수 없는 포럼의 구조적, 시간적 제한을 감안할 때 이니셔티브의 수를 더 줄일 필요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륙간 사회연대경제네트워크(RIPS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여러 개의 이니셔티브를 제출한 관련 파트너 기관들이 주제별 워크숍 구성 가능성에 대하여 문의가 있었다.

제안서 개수 축소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차 선정 기준이 합의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위원회 위원들이 각자 제안서를 선정하고 이것을 취합하여 학술사무국이 최종 선정 제안서를 결정한 다음 GSEF 사무국과의 논의를 거쳐 2018년 5월 제안서 선정을 완료하였다. 이후, 이니셔티브 제안서 수락 및 탈락 통보는 5월 말에 시작되어 6월 초에 마무리되었다.

### 포스터 세션

조직위원회는 최종선택에서 탈락한 선정 이니셔티브 가운데 37개(바스크 지방 28개, 여타 스페인 도시 9개)를 선정하여 공용공간과 네트워킹 공간에 포스터의 형태로 전시하도록 포스터 세션을 준비 지원하였다.



포스터 세션을 방문하여 회의 중인 참가자들



##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도 이니셔티브의 선정과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먼저 학술사무국이 제안서를 준비한 다음 조직위원회와 공유하여 협업했다. 조직위원회는 논제와 연사의 제안, 연락과 초대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전체 세션의 주제와 연사 선정은 1월부터 5월까지 이니셔티브 선정 작업과 병행되었다. 프로그램 초안은 6월에 웹사이트에서 공개되었으며, 이때부터 포럼이 열린 기간까지 포함하여 정기적인 자료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



주제별 워크숍 참가자

프로그램은 전체 세션, 이니셔티브 발표 워크숍, 현장 탐방, 그리고 부대 행사로 최종 결정되었다.

- 5개의 전체 세션 4개 대륙의 도시와 국제단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총 31명의 연사가 참가하여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가 담당하는 역할과 현황을 논의했다.
- 29개의 워크숍이 9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23일까지 접수된 600개에 달하는 제안서 가운데 선정된 102개의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다. 또한, 몬드라곤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이 특별히 추가되었다.
- GSEF 사무국 주관 주제별 워크숍 3개와 부대행사: 청년세션, 아프리카 세션, 국제협력세션, 청년페스티벌



주제별 세션 발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준비한 워크숍 2개
- 다양한 국제기구가 준비한 워크숍 7개: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세계공정무역기구(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대륙간 사회연대경제네트워크(RIPES),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국제사회적경제투자연합(INAISE)
- 포스터 형태로 발표된 이니셔티브 37개
- 현장 탐방 프로그램 11개
- GSEF 파트너들이 조직한 3개의 부대 행사와 유럽 보고서 발표 2건: FAEDEI가 발표한 '2017년 사회적 통합기업 연차보고서'와 국제연구정보센터(CIRIEC)의 '2017년 유럽사회적경제발전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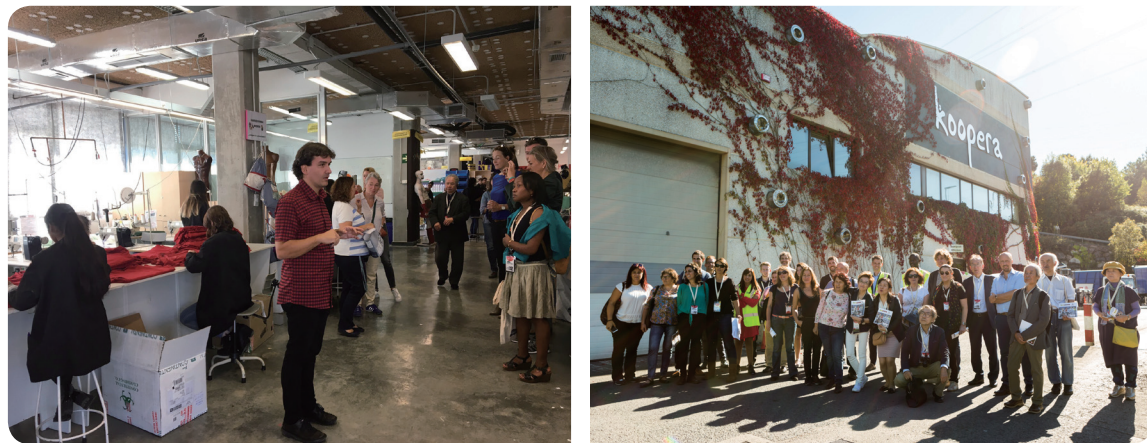
다양한 목표로 마련된 GSEF 파트너들의 부대 행사에 400명 이상이 참여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후원한 청년 페스티벌은 사회적경제에 헌신하는 젊은 활동가들이 의견, 경험, 아이디어를 모으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했다. 사회적연대경제 국제지식전수센터(C.I.T.I.E.S.: 사회적경제의 혁신과 지식 확산을 위한 국제 지식전수센터)는 사회적경제 연구와 지식 공유 사업을 발표했다. 바스크 대안연대경제 네트워크(REAS Euskadi)와 대륙간 사회연대경제네트워크(RIPES)는 2020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될 '전환경제 글로벌포럼(Global Forum of the Transformative Economy)' 준비 과정을 소개했다.



포럼이 열리는 동안 유럽 사회적경제협회 (Social Economy Europe), 스페인 사회적경제 기업연합(CEPES), 바스크 협동조합연맹(Konfekoop), 대륙간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RIPESS)는 회원들이 빌바오에 모인 기회를 이용하여 몇 차례의 전체 단체 및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 현장탐방

GSEF2018의 중심 주제와 주제가 정해진 다음에는, 포럼 참석자들이 빌바오 지역의 사회적경제 부문 단체와 실제 사업현황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포럼에서의 발표와 논의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현장탐방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GSEF2018 참가자들을 위한 현장탐방

현장 탐방의 구성은 조직위원회가 전담했다. 총 11개의 주제별 방문 일정을 준비하여 참가자가 한번에 한 주제 하에 여러 현장을 방문할 기회를 제공했다. 총 495명이 현장 탐방에 참가하여 몬드라곤을 비롯한 빌바오시와 바스크 지방의 32개 사회적경제 단체와 기업을 방문했다.

방문 일정 별로 참가자 수가 제한되어 있었기에 반드시 참가할 의지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소정의 참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참가비 15유로의 몬드라곤 방문을 제외하면 현장탐방 참가비는 10유로로 결정하였다.

###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홍보와 커뮤니케이션은 GSEF2018 포럼의 성공의 열쇠 중 하나다.

조직위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단체가 각자의 네트워크와 파트너들을 동원하였으며, GSEF 회원들과 명예위원회, 오리엔테이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힘을 보탰다.



빌바오시청에서 개최된 GSEF2018 공식 기자회견

포럼의 홍보를 위해 뉴스레터가 준비되어 조직위원회와 GSEF 네트워크 회원들에게 발송되었다. 행사일 확정, 제안서 접수 시작, 포럼 등록 개시, 공식 웹사이트에 공식 프로그램 업로드, 전체 세션 연사 정보 및 이니셔티브 확정 후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중요한 전달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뉴스레터가 발송되었다.



ONCE에서 발행한 GSEF2018 기념복권

또한 배너 형식의 행사 안내를 발송하여 모든 관계자들이 각자의 웹사이트에 공유하도록 권장했다. 동시에 GSEF 사무국, 학술사무국, 빌바오 시의회도 가능한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포럼을 널리 알리고 홍보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홍보 작업으로 빌바오시에서 커다란 화제가 된 ONCE복권 발매가 있다. 스페인시각장애인연합(ONCE)과의 협력 하에 GSEF2018을 기념하는 복권이 2018년 10월 3일 자로 발행되었다.

### 후원

GSEF2018은 다음 세 기관에서 후원했다.

**라보랄 쿠차(LABORAL KUTXA)** 라보랄 쿠차는 노동인민금고(Caja Laboral)와 신용조합 이파르쿠차(Ipar Kutxa)의 합병으로 탄생한 협동조합은행이다. 합병 계획은 2012년에 발표되었다.

**몬드라곤 그룹(Mondragon Corporation)** 몬드라곤 그룹은 바스크 지방에서 시작된 협동조합 기업들의 연합체로 현재 스페인 전역과 5개 대륙에 진출해 있다. 바스크 기업순위 1위, 스페인 기업순위 10위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이다.

**바스크 자치정부** 바스크 자치정부의 노동정의부 사회적경제 부서는 GSEF2018 포럼 조직위원회 구성원이기도 하다.

## 연사를 위한 재정적 지원

포럼은 연사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

전체 세션과 이니셔티브 연사 전원에게 포럼 무료 등록 혜택과 최대 3박까지 숙박비를 지원했다. 또한 요청자에 한해, 항공편을 포함한 여행경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 등록

포럼 등록은 2018년 3월 23일에 시작되었다.

등록비는 조직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100유로로 정해졌다. 등록이 시작된 후, 전액 지불이 어려운 단체 신청자에 한해 요청할 경우 등록비를 80유로로 할인요율을 적용하였다.

포럼의 초청장 배포 대상은

- 조직위원회 단체/기관 소속 사회적경제 단체 회원 (단체별 각 1명)
- GSEF 네트워크 회원 도시 및 사회적경제 단체 (단체별 각 1명)

초청장을 받은 참석자들과 전체세션과 이니셔티브 발표 워크숍에서의 연사 및 좌장들은 등록비가 면제되었다.

# 3.

## 숫자로 본 GSEF2018

### 참가 현황

**G**SEF2018은 75개국 327개 도시에서 1,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그 중 200명 이상이 지방 정부 대표였다.

이것은 초기의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대강당에서 열린 전체 세션과 워크숍은 모두 높은 참석률을 기록했으며, 사람이 몰려 모두 수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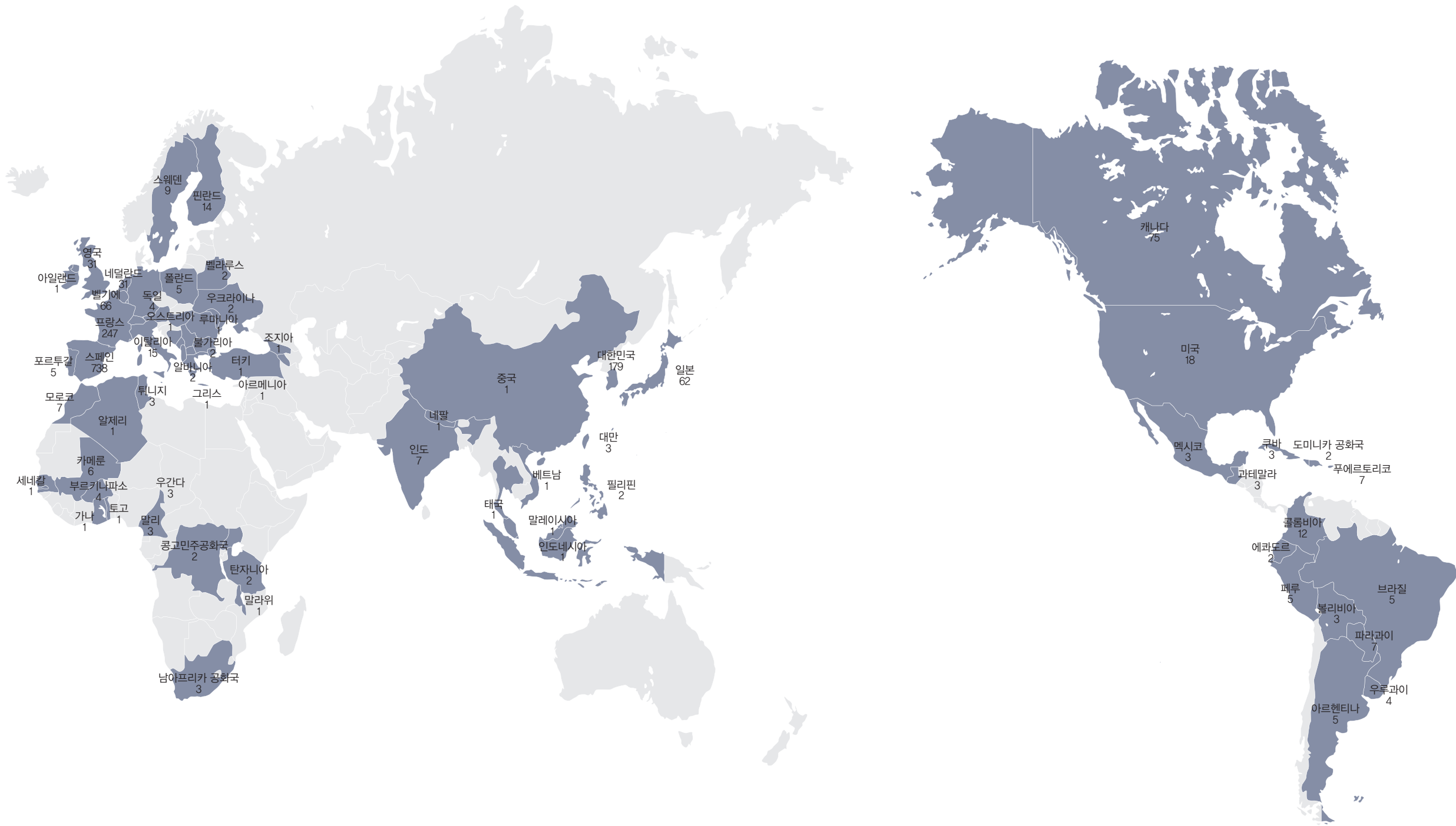
포럼 참가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경제 기관 및 네트워크 대표 60%
- 지방정부 대표 18%
- 시민사회 대표 10%
- 대학 대표 6%
- 기타(언론, 시민) 6%

다음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스페인 이외 지역에서 온 참가자가 전체의 61%에 달했으며, 유럽 외 다른 대륙에서 온 참가자가 전체의 3분의 1가량에 이른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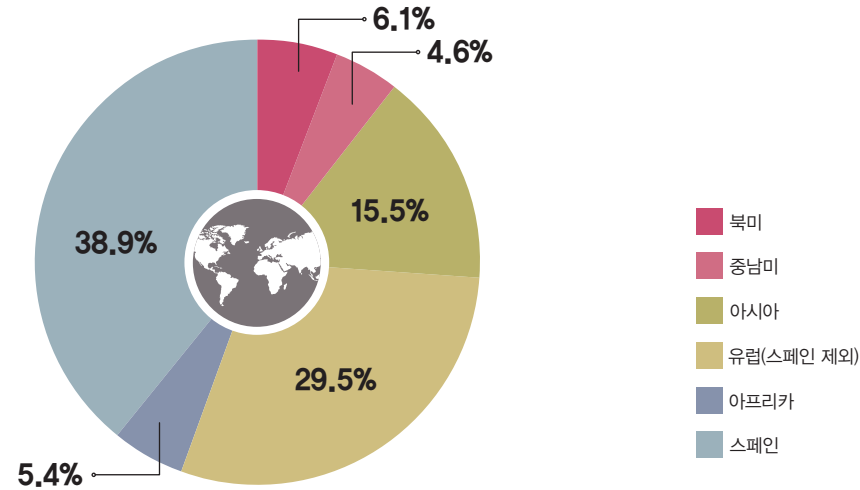
● 참석자들의 국가 분포 ●



위 지도에서는 공간상의 이유로 모든 유럽국가를 표시하지 못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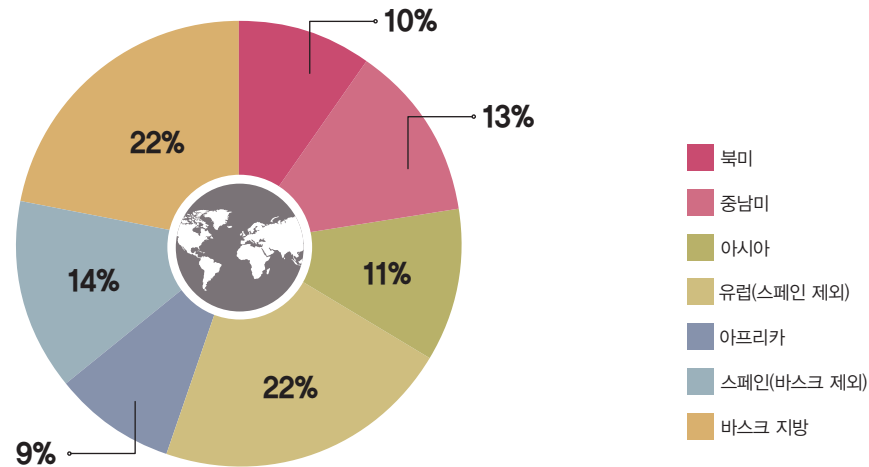
다음 지도에서 보듯, 유럽을 넘어선 포럼의 영향력이 상당했다.

• GSEF2018 참가자 국가별 현황 •



이니셔티브 발표 워크숍을 위한 제안서 선정 시 지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지역이 포함되도록 지역안배가 고려되었다.

• GSEF2018 제안서 제출 국가 •



## 언론 보도

GSEF2018은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그리고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지역 언론은 이번 행사를 광범위하게 보도했다.

마찬가지로, 조직위원회 소속 단체들과 포럼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한 기관들이 각자의 웹사이트와 미디어 채널을 통해 GSEF2018 관련 뉴스와 정보를 퍼트렸다. 이 중 상당수가 대륙간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RIPESS), 유럽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Europe), 유럽연합(European Union), 세계 지방자치단체연합(UCLG), 사회적경제를 위한 유럽 도시와 지역 네트워크(REVES) 등의 국제기구였기에 포럼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소셜 미디어 중에서도 특히 트위터의 반응이 상당했다.

10월 1일 10시 30분, 해시태그 #GSEF2018이 스페인에서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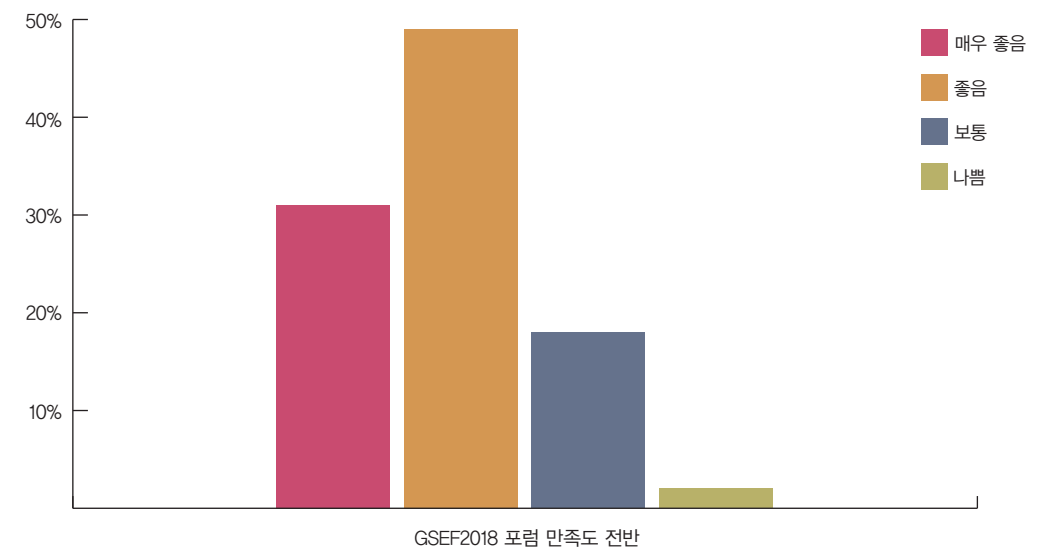
10월 2일 15시 40분, 해시태그 #GSEF2018이 빌바오에서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10월 3일 13시 25분, 해시태그 #GSEF2018이 빌바오에서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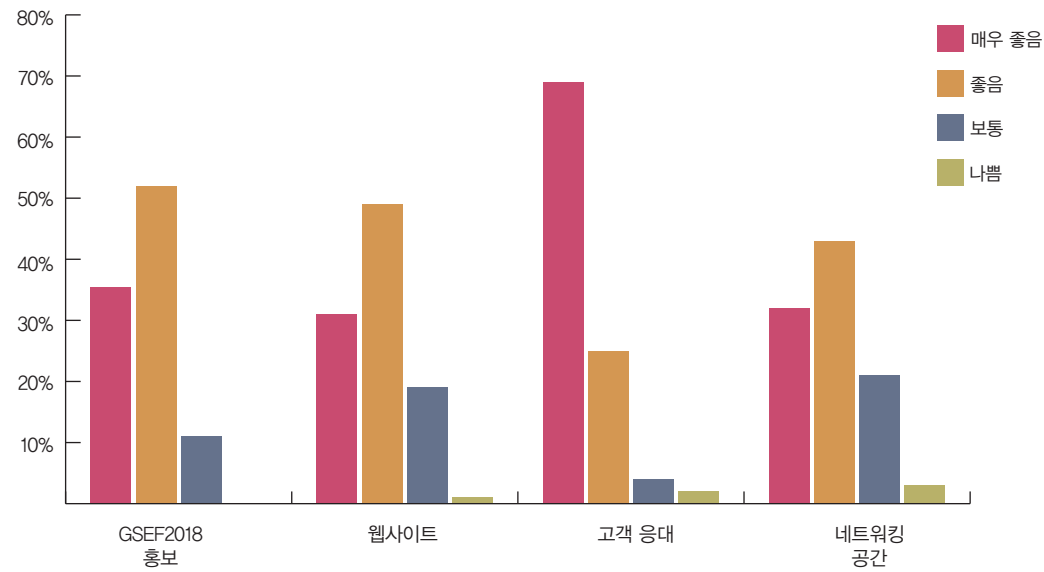
GSEF2018을 마친 후 모든 참가자에게 온라인 평가 설문지가 발송되었다. 설문 응답자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 포럼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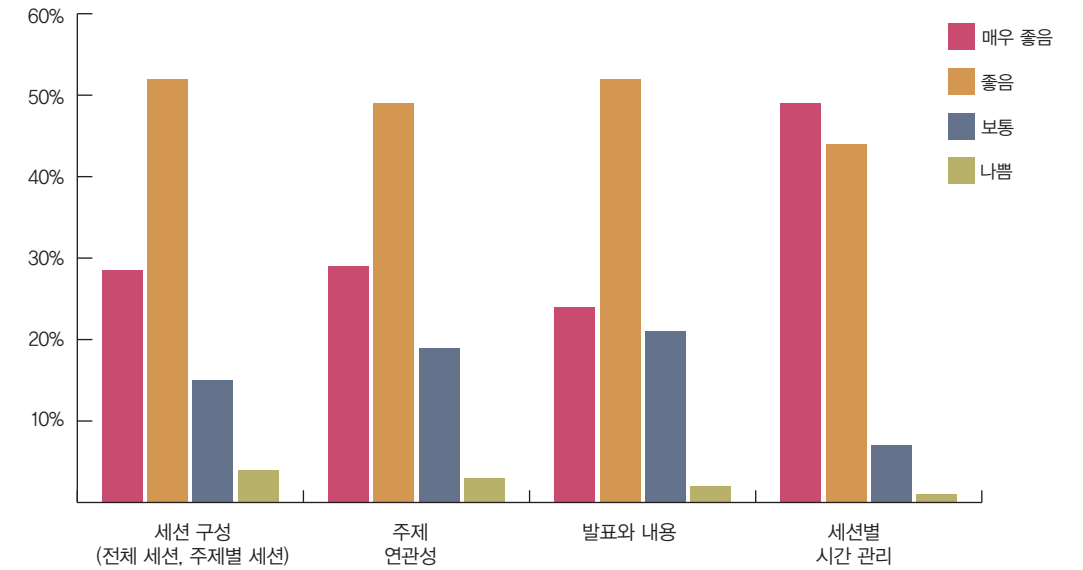


- 설문 응답자의 80%가 GSEF2018을 좋음(good)에서 훌륭함(excellent)으로 평가했다.
- GSEF2018에 참여하여 얻은 구체적인 결과로는 새로운 인맥을 만들고, 모범 사례를 발견하고 공개할 기회였다는 응답이 많았다.
- 설문 응답자의 70% 이상이 주최 측의 세심한 배려에 높은 만족을 표했다.
- 더 많이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있고 소규모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점이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 향후 포럼에서는 개최 도시 도처에서 포럼과 관련된 이벤트와 활동을 조직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GSEF는 명실상부한 국제적 수준의 이니셔티브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 포럼 전반 ●



● 프로그램 내용 ●



# 4.

## 전체 세션



GSEF2018 개막식 사진

GSEF2018의 중심 주제는 “**사회적경제와 도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가치와 경쟁력**”으로, GSEF 공동의장(박원순 서울시장, 김정열 민간공동의장), 빌바오시장, 바스크 주지사, 그리고 유럽,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사회적경제 부문 최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진행되었다. 또한 포럼에 참가한 도시 정부 대표자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전체세션에서의 패널 토론도 진행되었다.

### Mayors Podium

의장도시 서울의 박원순 시장과 개최도시 빌바오의 후안 마리 아부르토 시장을 비롯한 지역 및 도시 대표들이 참석해 각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의지와 지지를 밝힌 시장단 연단 Mayors Podium은 포럼의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였다.

#### 참석자 명단

- 대만 첸 친 밉 타이페이시 부최고책임자
- 말리 하리마칸 케이타 바마코 부시장
- 미국 필립 톰슨 뉴욕 부시장
- 스페인 마리아 우바레체나 몬드라곤시장
- 스페인 조르디 토르트 레이나 가바시장
- 스페인 루이스 인차우스페 에르나니시장
- 스페인 헤라르도 빠사레요 바르셀로나 부시장
- 우간다 로날드 발림웨쵸 캄팔라 나카와구청장
- 카보 베르데 오스카 산토스 프라이아시장
- 캐나다 모드 마르퀴스 비소네트 가티노 사회연대경제 사회발전 의원
- 캐나다 로베르 보드리 몬트리올 부시장
- 페루 하이메 그라나도스 메히야 파초시장
- 프랑스 장 마르크 레스파데 타르노시장
- 프랑스 오토만 카우아 쏘(Sceaux) 사회적경제와연대 의원
- 프랑스 아예 기슬레인 비아리츠 부시장
- 프랑스 두니아 베송 리옹 부시장
- 프랑스 크리스티앙 부샤 릴시 지속가능발전 부국장
- 프랑스 파트리시아 앙드리오 오베리브 방잔 몽소주네 시의회 민선의원
- 프랑스 에마누엘 루세 렌 부시장
- 프랑스 장 퉁 클로드 프라델스 메리낙 지롱드 사회연대경제 시의회 민선의원
- 프랑스 파트릭 바살로 생드니 코뮌 지방정부 민선의원
- 프랑스 마티유 테우리에 렌느 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부국장



- 프랑스 잔느 바르세기안 스트라스부르크 광역시 지방정부 민선의원
- 프랑스 파스칼 뒤포레스텔 누벨 옥시덴느 지방정부 민선의원
- 프랑스 마르크 고드프로이 릴 광역시 사회연대경제 담당 민선의원
- 프랑스 마리 므니에 옥시타니 지방 사회연대경제 담당 민선의원
- 핀란드 에르키 파르키넨 살라시장
- 대한민국 서철모 화성시장
- 대한민국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 대한민국 김수영 양천구청장
- 대한민국 서양호 중구청장
- 대한민국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 대한민국 이정기 중랑구청장
- 대한민국 김영중 종로구청장
- 대한민국 정원오 성동구청장

1. 사회적경제를 위한 지원: 일시적 유행인가 진정한 의지의 표현인가
2. 도시 중심 시대에서의 사회적경제
3. 사회적경제를 위한 약속: 다양한 대륙별 시도
4. 도시와 협력
5. 사회적경제를 통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이하 전체 세션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략히 소개한다.



개회식 Mayors Podium 시장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럼은 총 5개의 전체 세션과 42개의 워크숍으로 구성되었다.

5개의 전체 세션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

전체 세션 1

## 사회적경제를 위한 지원: 일시적 유행인가 진정한 의지의 표현인가



전체 세션 1에서는 후안 마리 아부르토 (Juan Mari Aburto) 빌바오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호르헤 가르시아 까스파뇨 (Jorge García Castaño) 마드리드 경제재정부 대표, 헤라르도 피사레요 (Gerardo Pisarello) 바르셀로나 제1부시장, 크리스토프 이티에(Christophe Itier) 프랑스 중앙정부 사회적경제고등판무관, 이니고 우씬(Iñigo Ucín) 몬드라곤그룹 회장이 패널로 참가하여 사회적경제가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와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각자의 도시와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원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관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가 도출되었다.

- 사회적경제는 지속가능성, 삶과 직업의 기회 등의 새로운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도시개발 모델이 필요한 도시의 이해와 맞물린다.
-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가치와 목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역량이기도 하다. 특히, 사람을 중심에 둔다는 가치에 지역발전정책과 사회적경제 모두 중요성을 부여한다.
- 협동조합 기업은 앞서 언급한 사람의 가치 외에도, 미래를 보장해 줄 부를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전체세션 1

전체세션 1에 참가한 모든 연사는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지역발전과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지지를 보내기로 다짐했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된 바스크 지방의 대표들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온 일을 계속하는 한편, 당국과 사회적경제 단체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 통로를 개선하고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단위 정책을 추진하는 프랑스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고등관무관은 정부의 정책이 특히 전반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사회적경제 부문을 따로 활성화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부문이 경제 활동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의 형태와 가치를 다른 기업들로 확대하여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들 개인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정책 차원으로 표현될 수도 있으며, 시장과 지방 정부 대표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 이상을 실현하려는 노력도 있다. 합의된 지향점을 통해 도시 구성원들 간의 응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빌바오의 '가치의 도시' 프로젝트가 한 예다.

연사들 모두 지식사회의 디지털 혁명이 초래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소외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에 동의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는 보다 균형 잡힌 사회 발전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에서 사회적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 라틴어로 '공공의 것'을 뜻함)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을 재정비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을 위한 사회를 발전시킨다.
- 새로운 균형을 위해 사회계약을 재구성한다. 이때 사회적경제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민관의 협력도 필요하다.
- 안정적인 재정적 틀을 구비한다.
- 성장 기금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 사회적경제 기업이 진출한 부문에 공공투자한다.
- 사회적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혁신적인 공공구매를 구현한다.

전체 세션 2

## 도시 중심 시대에서의 사회적경제



전체 세션 2에는 도시 정부 대표 크리스티안 부샤르(Christiane Bouchart) 릴시 지속가능발전 부국장 겸 RTES회장과 로베르 보드리 (Robert Beaudry) 몬트리올 경제개발 부시장,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국제기구 담당자들인 에밀리아 사이스(Emilia Saiz)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사무총장, 마틴 반 덴 보레(Martin Van den Borre) 사회연대경제 국제지식전수센터(C.I.T.I.E.S.) 상임이사, 시멜 에심(Simel Esim) 국제노동기구(ILO) 협동조합부장, 루르데스 베네리아(Lourdes Benería) 도시계획 전문가이자 사회적경제 활동가가 연사로 참가했다.

도시와 사회적경제,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그 둘 사이의 연계는 GSEF 탄생의 근간이다. 사회적경제적 글로벌 관점에서 21세기는 도시 중심의 시대다. 많은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대응, 다양한 집단의 조화, 기초자원의 활용 최적화, 불평등과 빈곤 해결 등 세계가 직면한 과제가 더 명백하게 드러나는 곳도 도시다.

이 세션은 지방정부가 앞서 언급한, 그리고 이전 세션에서 이미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유용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세션으로, 지난 25년간을 되돌아보면서 도시의 급격한 변화를 조망하고 사회적경제가 도시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 논의했





전체세션 2

다. 연사의 다양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도시 자체에 그리고 도시 및 지방정부의 정책입안자들에게 훌륭한 조력자라는 인식에는 차이가 없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튼튼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수익의 재분배 측면에서 시민에게 이익을 제공해 준다

- 사회적경제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 사회 영역에 혁신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는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순환경제를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와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는 선구자 역할을 한다. 그들은 보통 지역 내부에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한다.
- 민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의 원칙이 단지 단체와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전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의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덜 발달한 지역에서 비공식적 경제 부문의 노동자를 공식적 경제 부문으로 통합하는 역량을 갖고 있다.
- 단기적 정책보다 장기적 정책을 우선시하는 사회적경제는 안정된 구조를 필요로 하는 도시에 혜택을 가져온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방법과 아울러 앞으로의 과제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도시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 다른 정부 기관에서 결정된 정책들도 도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도시는 정해진 모두의 비전을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자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경제적 어려움은 노동 시장에서 시민들의 통제를 벗어나기도 하며, 경제

구조 조정은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다. 기술 변화, 일자리 또는 비정규직의 비공식화 및 불안정, 유럽 이민자 문제로 인한 긴장 상황은 도시와 시민들이 고통받는 위기 상황을 처해 있다.

따라서 도시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더욱 대담해져야 한다. 문제의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도시는 도시 뿐 만 아니라 도시 주변 지역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에서 사회적경제 모델이 구축, 합의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수적이다. 연대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굳건히 뿌리내려 정치적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뿐만 아니라 투기가 줄어들고 보다 포용적인 대안적 미래를 목표로 하므로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 사회적경제를,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회적경제는 상처를 덮는 반창고가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역 경제를 바라보기 위한 도구이다. 사회적경제는 기존의 방식과 병행하거나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중심점이 되어야 한다.
- 도시와 지방정부가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시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 서비스 공급을 위한 새로운 경로로서의 모델, 파트너십을 찾아야 한다. 돌봄 경제가 그 중 하나인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주요 해결 과제다.
- 도시는 투기적 행태를 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재정적 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민자들을 공동체에 통합하고, 관료적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 마을 공동체 단위로 지원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모든 공동체에 같은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신뢰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공동체 안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여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경제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도시 및 지역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 국제 사회적경제협의체가 시작한 이러한 도시간 네트워크를 만드는 작업을 더 확장해나가고 또한 유럽연합에서 시작한 시범 프로그램들도 유지 확장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체 세션 3

# 사회적경제를 위한 약속: 다양한 대륙별 시도



**전**체 세션 3에서는 GSEF2018 포럼에 참가한 대륙별 연사들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서 세계적인 사회적경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연사로는 바스크 지방 마리아 헤수스 산 호세 (María Jesús San José) 바스크 정부 고용정의부장관, 유럽 슬라보미르 토크르스키 (Slawomir Tokarsi)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혁신과 첨단제조 부장, 아프리카의 폴린 에이베 에파 (Pauline Eyebe Effa) 프랑스-아프리카 공동개발 협력(PFAC) 사무국장, 인도의 마노즈 쿠마르 테오티아 (Manoj Kumar Teotia) 농촌·산업화 지역개발 연구소 조교수,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레안드로 모라이스 (Leandro Morais) 라틴아메리카 고용과 사회적경제 연구소 담당자가 참석하여 다음의 주요 의제에 대하여 논의했다.



전체세션 3

- 각 지역이 처한 현실과 각 지역 내부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사회적경제 맥락도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환경적 연대책임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현실과 상황 하에서도 사회적경제 이외의 방법들보다는 더 나은 방식으로 경제 발전과 지속가능성 문제를 풀어나갈 가능성을 제공한다.
- 사회적경제는 원조나 자선보다 지역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해 훨씬 나은 방식이다. 사회적경제가 비경쟁적인 경제체제라는 식의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오해를 극복하고, 사회적·환경적 성공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두는 사업의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다른 지역의 현실은 이와는 다름을 보여주기도 한다. 바스크 지방의 경우 고용창조와 위기대처 능력의 다른 현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특히, 혁신과 수출을 통한 성공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 몬드라곤의 예를 볼 때도, 사회적경제가 다른 기존의 방식보다 더 성공적임을 증명해준다.
- 금융 분야, 신규사업 육성 부문, 포용적인 지역에서의 시장 형성, 도시간 네트워크의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모든 대륙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규모와 상황은 달라도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경제의 다양성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내용과 그 안의 주체들에 맞는 전환에 도움이 된다.
-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정책입안자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기존과는 다른 종류의 발전모델이며, 통상적인 자본주의 기업과 똑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한다. 부적절한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대륙별로는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부각되었다.

**아프리카:** 비록 사회적경제가 널리 퍼진 지역은 아니지만, 불안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젊은이들이 변화의 희망을 견인하는 대륙으로 커다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는 비공식적 경제 부문의 일자리를 공식적 경제 부문의 일자리로 바꾸고, 여성을 경제구조에 통합시키고 주체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카메룬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투자 및 자금지원을 위한 합의를 만들어 내는 등 사회적경제 증진을 위한 정책입안자의 의지가 존재한다. 사회 내부에서부터 과거 존재하던 연대 기반이 살아나고 협력적 가치가 다시 힘을 얻어가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사회적경제가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 중 하나는 사회적경제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이해다. 지역 차원에서의 발전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지역에서 일궈내는 작은 성과들이 모여 나라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건설 분야처럼 사회적경제를 추진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 존재한다. 의사결정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사회적경제 교육이 필요하다.



**라틴아메리카:** 중남미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가 각국이 직면한 구체적인 도전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에서는 평화협정에 따라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전직 조직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사회적경제분야에서 공동체 자주관리 및 조직이 현 상황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에서는 기업회생 정책에서 사회적경제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 멕시코에서는 사회적경제가 토착 원주민들의 사회 복귀에 유용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국가 차원에서 '대중연대경제(Popular and Solidarity Economy)' 개념을 헌법에 포함시켰다. 브라질에서는 농업협동조합들이 다른 사회적경제 재단 및 사회단체들과 함께 발전해 왔다.

여전히 많은 부문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원이 필요한 비경쟁적 경제로 여긴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적경제가 민주적 가치의 매개체이자, 자본주의 경제모델과는 다른 방식으로 부를 창출하고 분배하는 모델이다. 이것은 그저 낭만적인 비전이 아니라 경쟁적 자본주의 기업들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신념에서 나온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적경제는 공동시장에서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동시에 사회적 민감성을 가진 경제라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책임을 지니며 전환된 기업으로 볼 수 있다.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국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입법을 추진한 도시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초래한 불평등에 더 잘 대처하고 있다.

연대와 기업이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규모가 큰 협동조합의 사례가 존재하지만 지역과 완전히 연계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과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의 공정한 방식이 적용된다면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적경제의 성공 사례가 많이 생겼고,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협동조합 지자체 네트워크의 구성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이 네트워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전념하도록 이끈다. 이런 식으로 사

회적경제는 사회와 공동체 발전, 교육, 국방, 환경 보존, 보건, 그리고 사회적 화폐 발행 등 공공정책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

**인도/아시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는 비공식적 경제 부문의 규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90% 이상이 비공식적 경제가 차지하고 있다. 농업 경제에서 비농업 경제로의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도시에서 새로운 요구와 필요가 발생했다. 여기에 더해 카스트 제도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 모든 상황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비록 명확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국의 영향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기업 이익의 2%는 반드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



찬디가르 등 일부 지방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법이 있으며, 다른 부문에서도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정책이 존재한다. 주요 도전과제 중 하나는 교육이다. 비공식적 경제 부문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인구 대부분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을 돕는 광범위한 사회적기업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도의 정치 체제는 복잡한 다당제이자 권력이 주와 지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체제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구조로, 빈곤과 주택이라는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와 지방 간의 화합과 합의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혁신과 첨단제조부장 견해에 따르면 유럽에는 수많은 형태의 사회적경제가 공존하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어렵고, 또 보다 열린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한다. 모두가 동의하는 보편원칙은 사회적경제가 시민이 주축이 되어 만든 시민들을 위한 경제라는 것이다. 공동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중심축은 재정적 지원 수단과 사회적

단의 증진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외된 이들을 위한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다. 젊은 인재 육성 또한 중요하다. 젊은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상을 제정하고 수여하는 방법도 장려되는데, 이때의 수상을 위한 프로젝트는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이니셔티브여야 한다. 이러한 시상식은 궁극적으로 청년층이 사회적경제에 참여하여 사회 전환이 가져오는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의의를 둔다.

유럽의 맥락에서 확인된 또 다른 과제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재정자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몬드라곤 그룹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정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러한 도전과제는 GSEF2018 포럼의 개최지인 바스크 지방의 주정부 고용정의부장관도 지적한 문제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이며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시각화를 위해 과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층을 사회적경제 부문으로 유입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대학교육을 포함하는 모든 연령대에서의 교육에 사회적경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의 또 다른 도전과제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경쟁력과 재정적 자율성이다. 즉, 수익을 내고 젊은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재정적 자율성을 늘 기업 발전의 핵심요소로 여겼던 몬드라곤의 경험이 예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유럽과 바스크 지방은 민관협력을 사회적경제의 확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본다. 공공 부문에서 지원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 사업들이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 사무국장, 제이슨 나르디 (Jason Nardi) 대륙간 사회연대경제네트워크 (RIPESS) 총괄 코디네이터, 그리고 티에리 장떼 (Thierry Jeantet) 사회연대경제국제포럼 (SSE International Forum) 회장이 이번 세션에 연사로 참여했다.



전체 세션 4

전체 세션 4

도시와 협력



**전**체 세션 4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도시의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성공 요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J. 필립 톰슨 (J. Phillip Thompson) 뉴욕 부시장, 이은애 서울사회적경제센터장, 린 콜린스 (Lynn Collins) 리버풀시 공정사회정의자문위원회장, 야오칭위 (Yao Ching Yu) 타이베이시 국제경제자문

좌장이 제시한 첫 번째 안건은 해야한다는 사명에서 출발하여 실제 수행을 어떻게 해 왔는지, 사업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도시를 보다 협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는 것이었다.

서로 다른 문화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서 나온 답변들은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모든 연사들이 공통적으로 더욱 포용적이고 평등하며 활동적인 도시를 만들어나가기를 바란다는 관점을 공유했다.

빈부격차가 심각하며 고질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뉴욕시와 같이 부유한 도시에서는 현 지방정부가 협동조합의 창업과 협력을 장려했던 기존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들의 창업을 돕고 보다 평등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있으며, 몬트리올시 등 다른 도시와 합작 투자의 형태로 공조하고 있다. 뉴욕시의 또 다른 목표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시의회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것으로, 시청의 구매량을 고려할 때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세션 참가자

서울시의 주요 목표는 고용창출이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공공구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과거의 노동 관행을 극복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협력이 새로운 생산구조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공동생산을 장려한다. 그들은 어떤 부문에서 실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점검해 보고, 현재 예산 토론을 통한 시민 참여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타이페이시에서는 기술을 장려하며, 이를 위해 스마트 시티 부서(Smart City Office)를 설립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그들은 성(젠더) 정책 부서를 설립했다.

리버풀시는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요소에 주목하여 보다 협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중 하나는 사회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주택정책, 교육, 대학관련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리버풀에서는 정책 결정 전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이 분야 정책을 검토하는 2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공정한 임금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고용 창출을 중요시하여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한 포용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나아가, 기업이 사회적경제의 중심 가치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공정한 고용 지도를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사회적 조항을 지지하는 공공 구매 모델을 도입하여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륙간 사회연대경제네트워크 (RIPESS)는 보다 협력적인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공재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 내 공공장소 관리와 재생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 볼로냐의 경험과 관련 규정이 소개되었다. 이 규정은 모든 단계에서 공동 행동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을 결속하는 사회계약의 재구축과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 규정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자치의 형태로, 하지만 지방정부와의 협력 하에 도시 내 공간과 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니셔티브가 탄생했다. 그 밖에도 시민들이 도시의 정책 및 의사결정에 참여했고 도시를 어떻게 보다 협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시민들이 선거 기간에만 시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연대경제국제포럼 (SSE International Forum)은 2017년에 도시가 사회적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로 인정받았음을 언급하면서, 도시와 사회적경제 모두 민주주의, 시민의 이익, 그리고 공공재에 중심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도시와 사회적경제의 협력이 증가하고 더 중요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세션의 두 번째 논제이자 마지막으로 논의된 내용에서는 개인적 필요의 폭넓은 다양성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이 어떻게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다뤘다.

연사들 각자가 처한 서로 다른 현실로 인해 다양하고 풍부한 제안이 소개되었다.

뉴욕시는 폭넓은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공동 의제의 구축은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지배구조,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더 많은 협동조합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개방된 구조를 만들고 도시에서 오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상호 협력할 공동 의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하였다.

리버풀시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된 사회적경제의 다양성과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목소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공통의 목소리가 없으면 충분히 큰 소리를 내기 힘들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타이페이시는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을 포함하여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을 가져오기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효과와 영향력이 클 수 있는 작은 변화들도 중요하다고도 강조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정부의 구조개혁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대륙간 사회연대경제네트워크 (RIPESS)는 오직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문화에서 사회적



으로 접근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복지를 숫자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 부를 함께 나누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측정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적·생태학적 영향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공유하는 자생 시민조직 간의 협력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협력하기 위한 지역 간 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연대경제국제포럼 (SSE International Forum)은 새로운 행정효율성과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경험을 주고 받으면서 실패 경험을 성공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도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연대경제국제포럼에서는 프로젝트를 포괄하는 아고라 (광장)을 만들고, 사회적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지원과 지역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체세션 5

전체 세션 5

## 사회적경제를 통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마**지막 세션인 전체 세션 5에서는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총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초민 가르시아 (Txomin García) 라보랄 쿠차 사장 겸 UNACC 부회장, 폴 라드 (Paul Ladd) 유엔사회개발연구소 (UNRISD) 국장, 마르쿠 마르쿨라 (Markku Markkula) 유럽연합 지역위원회 초대 부위원장, 마가렛 멘델 (Marguerite Mendell)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프란츠 볼프마이르 (Franz Wolfmayr) 유럽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공급자 연합회(EASPD) 전 회장, 모드 마рки-비소네트 (Maude Marquis-Bissonnette) 캐나다 가띠노시 의회 사회적경제 의원, 그리고 안토넬라 노야 (Antonella Noy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적경제혁신부국장이 연사로 참석했다.

1부에서는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을 돌아보고 이에 대한 연사들의 의

견을 나누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경제의 가치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활동가가 되어야 한다. 인식 보다는 참여 의지가 필요하다.
- 협력과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핵심 측면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모든 주체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협력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가 단지 공정한 방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방법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력과 효율성을 갖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야 하는데, 물론 경제적 가치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가치를 측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사회적 변화를 위한 공동체와 공동의 가치가 가지는 힘을 강조해야 한다. 공동 행동을 해야 한다.
- 청년층을 사회적경제 운동에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어야 한다. GSEF 포럼을 세대 간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 정책수립이 중요하다. 도시정부는 사람들과 가깝고 사람들을 쉽게 동원할 수 있으며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유리한 장점을 갖는다. 이로 인해 도시 별로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측면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세심히 살피고 실제 정책과 수행을 통해 이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 공공구매 부문을 잘 활용해야 한다. 사회적 통합 고용을 창출하고 공공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정부 층위 간 협력이 필요



하다.

- 현재의 융통성 없는 구조로는 부문 간 또는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이 어렵다. 혁신을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융통성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 참여와 혁신 등 사회적경제의 가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 공유를 위한 포럼, 지식의 통합, 연구조사 등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실패한 경험을 분석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 사회적경제가 갖는 다양성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인해 논의가 풍부해지고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다.
- 사회연대경제는 도시의 '비전'이기도 하며,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양한 국제기구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성공을 거두었다.

세션의 마지막 논의 주제로 “사회적경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성장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연사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 홍보: 협동조합이 무엇을 수반하는지,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이 연대 메커니즘을 통해 부를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알려서, 단순한 재분배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분배' 개념을 강조해야 한다. 재분배는 단순히 나누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 사회적경제 정책의 연속성 보장: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를 지속,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
- 리더십과 일관성 있는 정책: 사회적경제가 사회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 정책입안자들이 알아야 하며 이를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거버넌스: 국제관계와 거버넌스는 몬드라곤 그룹이 성장하는데 항상 어렵고 우려되는 부분이었으며 여전히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 자금 조달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금 조달을 통해서 재정자립을 확보하여 장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몬드라곤 그룹은 관용과 상호협력적인 금융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및 본 포럼과 같은 꾸준한 지식교류 를 증진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세대 간 대화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청년층을 위한 캠페인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교육을 학교 교과과정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회적경제 분과모임 및 시상식 등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영향과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인식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 시민사회를 돕고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다양한 상황과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구성과 발전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폐회식

빌바오 선언문과 청년선언문이 GSEF2018 폐회식에서 낭독되었다.

빌바오 선언문은 포럼이 열리기 전부터 수개월에 걸쳐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GSEF 사무국과의 협력 하에 논의 및 준비과정을 거쳤으며, 청년 선언문의 내용은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청년들에 의해 준비 및 작성되었다.

마지막으로, 10월 2일에 열린 GSEF 회원 총회에서 멕시코시티가 2020년에 열릴 제5차 GSEF2020 포럼 개최도시로 선정 및 발표되었다.

포럼의 폐회와 함께 성평등 선언문이 낭독되었다.



김정열 GSEF 민간공동의장이 빌바오시장에게 감사패 전달



# 5.

## 주제별 세션

다음으로는 이번 포럼에서 진행된 주제별 워크숍에서 발표된 이니셔티브들을 소개한다. 전체 이니셔티브를 중심 주제와 주제, 부주제별로 개괄하여 중심 주제 및 부주제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구성하였다.



네트워킹 공간

### 주제 1

## 공공정책 공동 수립 및 실행

**공**공정책 공동 수립 및 수행은 다양한 유형의 참가자들이 발전 모델과 공공서비스를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재수립하는 것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참가자는 공공부문 관계자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관계자(서비스 사용자, 간접 수혜자 등)도 포함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역량, 자원(지식, 정보 등)을 전달하고 공유하여 함께 과정(심의와 의사 결정)과 결과(보다 효과적, 효율적이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더 큰 사회적 가치(통합, 사회적 결속력)를 창출해냈다.

공공정책수립은 지역사회 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룹과의 소속감, 참여 및 도덕적 헌신 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민주적 가치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사회전환을 위한 좋은 도구로 인식되기도 한다.

###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주체 간의 협력 전략

정부·민간·공동체주체 간 협력 양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의 전 단계에서 다음의 목적을 위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지역사회 요구 파악
- 공동의 해결책 수립
- 사업이 수행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진정한 참여
- 사업의 공동 운영
- 모두가 참여하는 평가 시행

이러한 협력은 참여형 거버넌스, 공공정책의 공동 수립, 민관공동협의체, 공동 사업수행 등의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이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며 함께 참여를 통해 만들어낸다는 주인의식과 사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와 교육 등의 더 많은 혜택도 가져올 수 있다.



민관협력을 다룬 (유럽, 아시아, 북미 및 중남미에서 제출한) 9개의 이니셔티브는 사회적경제가 지방정부와 협력한 사례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통합기업, 노동 공동체,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역적 성격을 가진 적극적인 공공정책은 두 가지 측면(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하기에, 위험에 노출되거나 소외된 집단을 포용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공동작업 공간이 사회적기업가 활동의 육성 측면에서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소개되었다.



‘기관간 협력 사례’ 세션

마찬가지로,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는 분야 (순환 경제, 기후 변화, 정보통신기술 등)와 사회적경제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 공공구매과 사회적 조항

공공조달분야는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럽연합의 공공기관들은 연간 1조 유로 이상을 상품 및 서비스 조달에 지출하며, 이는 유럽연합 GDP의 12~15%(연구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인구 1명당 약 2,000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Lesmes, 2006).

그러나 공공조달분야는 여전히 기술성·경제성 기준으로 결정되며, 그보다 더 중요한 윤리적·사회적 연대의 원칙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

프랑스, 에콰도르, 영국의 공공조달과 사회적 조항과 관련한 3개의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3가지 핵심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공공조달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대한 지방정부 및 공무원들의 인식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그 합의 자체도 지지하는 특징을 갖는다. 지역에서의 지역 가치사슬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그로 인한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정부 및 기관 결정권자의 리더십과 진정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 공공정책에서의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가 수많은 공공 정책에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회적경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이렇게 집단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의 역량은 모든 층위에서의 정부 (지방, 광역, 중앙, 초국가적)의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다양한 성격의 정책 수립에, 심지어 사회 부문의 공공정책 수립에 갈수록 더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 빌바오시 (스페인), 비토리아시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스페인), 마드리드시 (스페인), 릴시 (프랑스), 외레브로 지방 (스웨덴), 북미의 몬트리올시 (캐나다), 아시아의 서울시, 라틴아메리카의 마리카구 (브라질), 아프리카의 다카르시 (세네갈) 에서 준비한 12개의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다. 청년실업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여 사회적경제를 통해 위기에 대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경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경제의 규모와 초점이 사람 중심으로, 특히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들 (특히, 아프리카)에서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젊은이들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조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지원 방식이 보조금 지급에서 파트너십 모델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목표와 사회적경제

유엔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기업 및 단체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였다. 전문가들도 사회적경제가 특히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완전 고용 또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포용적인 산업화와 혁신과 관련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이유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주제별 세션 참가자

GSEF2018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가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았으며, 총 4개의 워크숍이 마련되었다. 그 가운데 3개는 관련 국제기구—유엔사회개발연구소 (UNRISD), 대륙간 사회연대경제네트워크 (RIPES),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UCLG)—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활동의 중점사항과 내용 등이 소개되었다. 서울시, 몬트리올시 (캐나다), 쿠알라룸푸르시 (말레이시아), 바마코시 (말리), 그라나다시 (스페인)에서 개발되고 있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 지역의 성공적인 경험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제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국제 네트워크와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또한 지역 사업을 지속가능발전목표 12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 확립의 실현과 결합한 구체적인 사례들도 발표되어, 사회적경제가 순환경제와 연계된 지역 정책 추진 시 훌륭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4번째 워크숍에서는 과테말라, 인도, 스페인, 네덜란드에서 준비한 4개의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다. 일자리 창출과 가족소득 증대, 그리고 환경보존과 식량주권에 기여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과 경험이 논의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을 위한 이니셔티브와 개발도상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과, 또한 높은 수준의 건강과 복지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보건과 지속가능성에 주력하는 협동조합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 주제 2

## 지역 변화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기여

**너**는 의미의 지역(territory)은 단지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이다. 행위자, 가능성, 잠재력, 그리고 동일한 문화적, 역사적·사회적·경제적 궤적과 환경을 공유하는 공간의 집합체로서 구체적인 현실과 자생적 발전 가능성이 생겨나는 공간이다. 각 지역에는 독특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과정을 촉진하는 사회경제적 요소와 특성이 존재한다.

## 기업가정신과 사회혁신

최근에는 사회적 활동과 이윤추구 활동을 결합한 복합적인 조직이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비전과 활동을 통합한 협력 모델, 자주 관리, 그리고 공동 정책수립 및 수행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하여 사회혁신을 이루는 방법의 하나이다.

GSEF2018 포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밖에도 3차례의 워크숍에서 스페인, 중미, 프랑스, 벨기에 등의 기업가 활동과 사회혁신을 다룬 10개의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다. 이들은 모두 사회혁신과 사회공동체 발전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강조했다. 또한 오랜 역사를 가진 민관협력 성공사례는 대부분 사회와 공동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사회적경제를 장려하는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는, 이민자의 기업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십,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성의 기업가 활동 지원, 그리고 농촌 지역을 위한 금융 서비스인 전환가능신용기금(Revolving Credit Fund)이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사회적기업의 사례로 제시되었다.

발표된 모든 이니셔티브는 자금지원 방식(공동체 네트워크, 협동조합, 연대경제, 그리고 공동금융)을 더욱 확대하고, 민관 공동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OECD 주관 세션

##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지역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지역은 지역 자체의 발전을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차원을 모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지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고려하는 지역으로, 가치 모델을 공유하고 참여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혁신과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 우수 사례를 장려하고 이해관계자들 간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권장하는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늘날의 경제적·기술적 발전은 많은 지역에서 불평등한 성장을 가져왔으며, 사회적 소외와 노동의 소외 그리고 환경 파괴를 야기했다. 사회적 책임 지역을 조성한다는 것은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관계자들의 협력을 추구하고,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윤리적·문화적 가치창출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멕시코, 벨기에, 스페인의 4개의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다.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 브랜드 또는 컨소시엄과 같은 솔루션이 제시되었다. 이런 방식은 지역에서 소비패턴을 관리하고 변화시키고, 사람과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그 지역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한 소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공동체의 책임의식과 관심을 꾸준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중고시장 활성화, 사회 조직을 통한 버려진 공간의 재생, 그리고 녹색 기업과 생태적 기업의 진출을 장려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다.

## 사회혁신 생태계

사회혁신 생태계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방식을 촉진하는 환경으로 생산적인 발전과 혁신을 자극하는 이니셔티브가 다수 만들어질 수 있다.

실제 사회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모든 사회적경제 및 혁신 관련 주체들은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잠재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성장가능성이 크고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유럽,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발표된 8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사회혁신 생태계의 작동이 공동협력과 공동의지, 그리고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민 참여에 기반한 실천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사례로 알아볼 수 있었다.

유럽 사례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주체, 협력자가 참여하고 사회적·기술적·지향성을 가진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아시아 사례에서는 경쟁력 향상 위주의 지원 정책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과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발표에서는 분쟁 지역(예, 탄자니아의 난민 수용소)에서 기업가활동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 사회적경제와 시민권의 협력: 변환을 위한 두 개의 축

사회적경제 조직은 시민 정체성의 수립과 일상적인 시민 참여권 행사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 사회공동체의 소속감을 높이며, 사람들과 집단의 어울림과 통합에 기여하는 시민의 참여적 실천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이 함께 모여 전반적인 복지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적경제에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아울러 더 완전한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참여적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공공정책 수립 및 결정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 범위는 여전히 사회적 자원을 정치적 자본으로 변환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노력과 전략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사회적경제의 도약과 새로운 사회계약의 창출을 경험한 서울시의 사례, 운송 및 창고 예산의 제약



으로 경영난을 겪었던 네팔의 사례, 여성이 가족을 위해 추진한 카메룬의 투명한 경영모델, 그리고 재활용, 식량, 이동성, 돌봄, 에너지 부문의 사회연대경제 이니셔티브가 도시 변화의 엔진으로 통합되어 지역 내 양질의 고용을 창출을 위한 또 하나의 도시 모델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마드리드시의 사례 등 서로 다른 효과를 경험한 사례들이 공유되었다.

### 사회적경제와 분쟁 후 회복과정에서의 기여

분쟁 후 회복과정에서의 기여는 분쟁이 종식된 후를 대비하여 미리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분쟁이 벌어지는 동안과 분쟁 후에는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해결책을 요구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대상자, 상황이 존재하게 되어 분쟁이 종식되어 평화에 이르는 과정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바탕이 되는 빈곤과 불평등을 고려할 때, 조직과 시민사회는 문제와 해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익히고 이용하여 경제 이니셔티브를 관리해야 한다. 분쟁 후 사회는 시민을 결속시키고 공동체의식을 조성할 기관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기관과 NGO,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발표된 이니셔티브 3개 중 하나는 분쟁 후 회복과정에서 사회적경제를 선택한 국가들의 비교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협력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콜롬비아와 유럽연합의 합작 프로젝트를 다룬 두 차례의 워크숍이 열렸다. 비교 연구는 분쟁의 유래와 성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 관점을 반영한 접근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 개입과 참여를 활성화하는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고 이 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역량을 구축한다.
- 중점 분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지역 발전 교육, 보건, 고용 등)를 폭넓고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 체계적인 태도, 가치, 정책의 변화를 지향한다.

또한 사고와 조직 방식(참여형 거버넌스)의 혁신을 추구하고, 여러 관련 주체들 사이에 공통점과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가진 경제적 관점의 영향 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험까지도 고려한 모든 영향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 몬드라곤 이야기

몬드라곤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분야에 있어서 유서 깊고 대표적인 실천사례로 꼽힌다. 몬드라곤은 스페인에서 전통적인 기존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산업발전에 있어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운동의 목표는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시장단 포디움에서 연설 중인 몬드라곤 시장



몬드라곤 대학교 발표



보다 공정하고 연대를 중시하는 기업이다. 포럼에 참가한 도시 및 활동가들과 오늘날 사회적경제의 세계적 벤치마크가 된 몬드라곤협동조합의 경험을 나누는 특별 세션이 마련되어, 자주 관리와 공동체 자치의 경험을 통해 자본주의 기업 구조를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포부에서 시작된 몬드라곤의 발전상이 소개되었다.

날로 심화하는 경쟁 속에서 몬드라곤은 직면했던 도전에 대응하면서 수익성과 수익 측면의 재정상태와 의사결정이 느린 경향이 있는 지배구조 모델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고, 그리고 때때로 보수적 성격을 떨 수 있는 협동조합 운동의 진정한 사명에 대한 고찰로 이어졌다.

### 주제 3

## 사회적경제 기관의 성장을 위한 도전 과제

사회적경제 기관의 성장역량은 주요한 도전 과제다. 이 주제는 내부적, 외부적으로 사회적경제 기관의 성장을 증진하는 요소와 억제하는 요소를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사회혁신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및 협력 플랫폼”의 증가로 인해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시사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특히 “그들이 보유한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부족과 신기술의 불충분한 활용”으로 인해 여전히 지원과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EC Communication/ European leaders for tomorrow: Initiative of emerging enterprises in expansion 22 Nov. 2016).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도전에 대한 유럽의 관점은 다른 현실상황 속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공동의 도전과제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사회적경제 주체 간 협력 경험

사회적경제의 다원적이고 다양한 성격으로 인해 각양각색의 집단을 대변하는 대표 조직뿐만 아니라 전체를 총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정체성과 공통의 이해관계로 인해 국가적,

국제적으로 사회적경제 전반의 협력 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이 야기되며 그를 위한 절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의 집단적 이미지가 더 가시적이고 분명할수록 사회적경제 부문에 속한 각 단체의 발전 가능성과 효율도 높아진다.

산토도밍고시, 뉴욕시, 빌바오시,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렌즈시 리버풀시의 사회적경제 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7개 사례가 발표되었다. 협력을 통합하여 지역사회에서 뿐 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에게도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경험이 소개되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목적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근접성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는데 공통점을 갖는다. 다른 이들은 지속가능한 공공구매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화하여 도시 공공정책과 사회적통합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키우고자 한다. 이는 또한, 반드시 수익성이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사회적 투자 개념으로 사회적경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투자방식보다 부담이 적고 유연한 투자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필요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때 역시, 사회적경제 단체 간의 연합이 절실히 필요하다.

모든 이니셔티브는 다른 단체들과 연합과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험과 도전과제에 대하여 공유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고 더해 사회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사회적경제 이니셔티브 창출과 자금지원방법

세계 금융 생태계를 수립하고 사회 경제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허용하고, 금융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정보에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자금지원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분석하고 이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차례에 걸친 워크숍에서 대한민국, 캐나다, 프랑스, 미국, 코트디부아르,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이니셔티브 8개가 발표되었는데, 모두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해 공동소유 (협동조합, 사업 공동체) 증진을 위한 자본을 마련하는 민관기금 (프랑스에서는 투자가클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증 제도를 통해 신뢰도와 신용을 가진 사회적경제 기업을 선별하여 기업별 자금 솔루션을 제공하고, 신용한도와 협상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공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가 자금이 바닥나는 일이 없도록 대출을 보장하는 유럽투자기금 (European Investment Fund)과 같은 범지역적 국제적 기구의 중요성도 언급되었다.

국제사회적경제투자연합 (INAISE)도 이번 GSEF2018 포럼에서 사회적금융을 주제로 별도의 워크숍세션을 주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다뤘다. 사회적금융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만큼 충분한가? 사회적경제 기업은 전통적인 금융 채널 외에 다른 방식의 도구가 필요하다는



주제별 세션 3

점을 반영한 새롭고 혁신적인 자금 조달 방법을 발굴하는 다각화가 필수적인데, 이런 면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진 사회적 가치를 알아보는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조성하여 연대저축과 윤리적 은행의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 사회적 가치의 경제적 가치화: 이해관계자 기반의 접근

유럽 사회적경제 (Social Economy Europe)가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기업은 경제적 이익 뿐 만 아니라 사회적 부를 창출해낸다”. 이것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사회적 기업의 영향력을 측정하려는 이유이자, 측정 결과가 투자와 자금 조달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이다.

사회적경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분위기 속에서도, 원래의 목적을 잊지 말고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포용적인 방식으로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과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의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 까지도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있고 활동의 사회적 영향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발표된 이니셔티브 4개(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는 평가 과정 초기부터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각 이해관계자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의사소통 채널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해관계자들을 평가에 참여시킨 경험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공동 거버넌스 구조로 실제 운영이 향상된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구축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그들의 활동이 가진 사회적 가치와 참여 동기가 증대되었다.

사회적 가치 측정은 마지막 세션인 전체 세션 5에서 다루어진 주제이기도 하며, 다른 사업방식과 비교하여 사회적경제가 가진 장점을 알리기 위해 사회적 가치 측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 주제 4

### 일자리와 고용의 미래: 사회적경제의 역할

**인** 구통계학적 변화, 문화적 다양성, 일과 가정의 조화, 변화하는 근로 환경, 기술의 융합과 같은 추세는 이미 뚜렷한 궤적을 그리고 있으나, 이 밖에도 역이민, 근로자의 가치 변화,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변화가 노동 시장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자동화로 인해 유럽 노동인구의 45~60%가 대체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 생산 노동과 재생산 노동

경제가 상품화되고 가계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재생산 노동이 유급노동화 되었다. 어린이집, 세탁소, 음식 판매 등 일부 재생산 노동이 가정에서 시장으로 이전되었다. 이런 서비스의 다수가 여성에게 전담되다시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적어도 공식경제 부분의 일부일 때는 노동에 보수가 주어지고, 통계에도 포함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노동력과 사회적 생산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것은 “재생산 즉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노동이다.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 돌봄, 유급노동의 비공식화, 그리고 동등한 기회는 생산 노동과 재생산 노



동의 이항식에서 사회적경제가 담당하는 역할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스페인과 카보베르데의 이니셔티브 2개가 발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핵심 사항으로 주목받았다.

- 기존의 경제인식의 전환으로 생산 시장과 재생산 시장을 통합하고 사람을 경제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가족계획과 사회경제 발전에서 여성의 인식을 높이고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그리고 공동책임에 초점을 맞춰 남성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여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과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
- 이와 함께, 유럽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돌봄 서비스가 상당수 위태롭고 변칙적인 상황에 놓인 이민자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는지 살펴보고, 사회연대경제에서 단체와 기업간 돌봄 서비스의 공식화를 증진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탐색되었다. 이 분야의 협동조합 구성을 통해 이민자들의 상황을 합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위한 교육과 청년

장래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증가하는 노동 공급과 수요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교육이 제안되었다. 이 해법은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많은 이들이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급변하는 일자리 분야에서 고용상황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밖에 의사소통과 업



청년 세션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발표

무 관계에 필요한 대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런 기술은 단지 고등교육 과정에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와 청년을 주제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총 9개의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다. 잠재력과 열정을 고취시켜 미래 사업의 주체로 육성하고 조기에 뛰어난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우선 어릴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부터 공간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젊은이들은 프로젝트를 시작할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신생업체를 위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도 도전과제이다.

발표된 이니셔티브에서는 사회적경제가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일하는 청년층이 사회연대경제로 이동하도록 돕고, 농촌에서 대도시로의 이주와 청년층의 이민을 관리하고, 공동체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말리나 인도와 같은 나라의 시골 지역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에도 충분한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되었다.

또한, 교육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고 인간의 기본권리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업기술 교육에 있어서 역량강화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포럼 전체세션 및 주제별 워크숍 세션 뿐 만 아니라 빌바오 청년선언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청년층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이어졌다. 이번 빌바



오 GSEF2018 포럼과 같은 기회를 통해 청년층이 만나서 자신들의 이야기와 지식 및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 지속해나갈 수 있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사회·노동 통합과 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를 위한 노동통합기업과 특수고용지원센는 빈곤과 소외를 타파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고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비즈니스 논리에 직업배치를 위한 방법론을 결합한 이니셔티브들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향상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동시에 수익성과 경쟁력도 따지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 활동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노동 통합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한 7개의 이니셔티브는 보르도 지방(프랑스), 티에넨시(벨기에), 도쿄시(일본), 몬테비데오시(우루과이), 빌바오시(스페인), 산세바스티안시(스페인), 마드리드시(스페인) 등 포럼에 참가한 모든 4개 대륙의 사례를 다뤘다. 대학과 연계하여 노동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자를 위한 고용을 늘리며, 노동통합과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측면이 논의되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장소의 재생과 공동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얼마나 시민권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지 보여준다.

포괄적인 사회적 통합 과정 (개인에 맞춘 유연하고 중기간에 해당하는)을 준비하는 것과 그러한 수



사회통합과 고용통합을 위한 비즈니스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아프리카 특별 세션

준에 맞는 기업에서의 고용은 사회-고용 통합에 성공의 열쇠를 제공한다. 계획 수립의 관점에서 사회적 통합기업 설립 과정의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한 재검토 과정을 두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을 맞는 사람들은 교육 과정과 사회적 통합기업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 사회적경제를 통한 비즈니스 변화

집단적 기업의 형태 (예: 직원이 자본 대부분을 소유하는 노동자 협동조합과 노동자 지주회사)로 존재하는 전통적인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과정 이외에도, 위기나 폐업 직전에 처한 기업이 직원과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협동조합 또는 노동기업의 형태로 전환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스페인과 벨기에의 이니셔티브 4개를 소개하여 사회적경제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면서 어떻게 성장 발전하고 시대와 사회 변화에 적응해왔는지 주목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업의 다각화와 참여적인 협력과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학교와 병원 급식, 유기농 원예, 디지털 경제 부문 등 공동체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만들어내고 있다.



C.I.T.I.E.S.I. 조찬 설명회



## 6.

## GSEF2018의 성과와 유산

**포**럼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장은 포럼의 성과와 'GSEF2018 포럼의 유산'으로 남은 요소들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특히 폐회식에서 낭독된 세 선언문, 즉 빌바오 선언문, 청년 선언문, 성평등 선언문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와 의의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 세 선언문은 세계 각지에서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으나 연대, 공정성, 투명성의 가치에 기반한 발전 모델을 추구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진 여러 사회적경제 부문의 의지와 기여로 탄생했다.

**빌바오 선언문**을 위해서는 빌바오 선언문 준비위원회가 2018년 6월 구성되었다. 이후, 빌바오 선언문 준비위원회 (Bilbao Declaration Working Group)는 사회연대경제가 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존의 논의와 성과들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연대경제 단체와 네트워크가 지방정부 및 도시와 협력하여 이뤄낸 성과, 그리고 2018년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한 위원회의 검토 의견과 2013년 준비된 서울선언문, 2016년 GSEF 포럼에서 발표된 몬트리올 선언문을 기반으로 하여 2018년 빌바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하고, 사회연대경제와 GSEF의 미래에 관해 GSEF2018 빌바오 선언문에서 명시할 내용을 논의하였다.

다양한 대륙의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준비위원회 회의는 여섯 차례 영상회의로 각각 영어와 불어로 진행되었으며, GSEF2018이 열리기 직전인 9월 30일에는 빌바오에서 위원회 멤버들이 참석하여 일곱번째 회의가 열렸다. 국제기구 회원들뿐만 아니라 스페인 국내외 파트너들도 빌바오 조직위원회, 그리고 GSEF사무국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중요한 초석으

로 남은 빌바오 선언문 작성에 힘을 보탤다. 빌바오 선언문은 10월 3일 폐회식에서 발표되었으며, 이후 GSEF2018 웹사이트에서 4개 언어(영어, 불어, 서어, 한국어)로 공유되었다.

**청년 선언문**은 포럼이 열리는 기간 동안 빌바오 선언문에 청년층의 관점을 포함시키고 그들의 참여를 부각시키기 위해 청년의 의견 부분을 넣자고 처음 제안되었다. GSEF사무국 주관으로 준비된 청년 세션에 연사로 초청된 청년 유럽협동조합인 네트워크 (Young European Cooperators Network)와 샹티에(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청년부 대표에 의해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여 포럼 기간 동안 포럼 장 네트워킹 공간에 공지하여 포럼에 참가한 젊은이들이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100명의 청년층 사회활동가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 선언문 수정안은 포럼 내 패널 토론에서도 공유되어 더 많은 논평과 의견을 받았다.

이후 선언문 내용이 합의되고 나서, GSEF 사무국장과의 회의에서 청년 선언문을 최종 선언문에 포함하는 대신 별도의 선언문으로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GSEF 네트워크의 발전과 사회적경제 전반의 세계적 진전에 청년의 참여가 핵심적이라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리하여 청년 선언문이 포럼 폐회식에서 낭독되었고, 차기 제5차 포럼 GSEF2020 참가자 중 적어도 35%가 35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야심 찬 메시지가 공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처음 준비되고 낭독된 청년 선언문은 이렇게 빌바오의 유산으로 남아, 2020까지 이어질 중요한 의제로 자리매김하였다.



폐회식에서 청년선언문 낭독



성평등 (Gender) 선언문 낭독

평등과 사회적경제를 지향하는 **성평등 (Gender) 선언문**은 GSEF 포럼에서 최초로 성평등 지지 선언이 합의되고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성평등 선언문은 조직위원회 구성원인 바스크 대안연대경제네트워크 (REAS Euskadi)가 발의한 이니셔티브로, 다른 참가 단체들의 즉각적인 호응을 얻었다. 바스크 대안연대경제네트워크는 이에 힘입어 즉시 선언문 작성을 시작하고, 해당 내용을 조직위원회와 공유했다.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완성된 선언문은 폐회식과 함께 에우스칼두나 네트워크 공간에서 이번 포럼의 4개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바스크어로 선포되었다. 선언문은 다양한 문화권의 공통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카메룬, 캐나다, 대한민국, 에콰도르,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서 참석한 여성 대표 5명을 초청하여 함께 낭독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GSEF2018 포럼의 위 3가지 선언문 외에 다른 성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지역에서 온 30여 명의 대표와 동유럽 지역 대표들이 사회적경제 정책 의지를 밝힌 GSEF2018 포럼을 소통의 기회로 삼았다. GSEF2018 포럼은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유럽연합의 분야별 정책에서 사회적경제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지방정부 대표들과 논의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시범 프로그램인 '유럽 사회적경제 지역 2018 (European Social Economy Regions 2018)' 프로그램을 소개하기에도 매우 적절했다.

또한 빌바오 포럼은 콜롬비아 정부가 참여하고 유럽연합이 자금을 지원한 합작 프로젝트가 발표되

기도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과의 평화협정의 기본 틀 내에서 협동조합 수립을 통해 전직 FARC조직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의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번 포럼을 통해 프로젝트의 내용과 성과가 공유되었다.

이러한 성과들과 함께, 빌바오의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지난 몇 달간 조직위원회에 보내준 아낌없는 지원과 헌신에 대한 언급도 빼놓을 수 없다. 빌바오시와 함께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관 및 단체들의 연대와 협력 경험도 매우 중요한 GSEF2018 포럼의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선언문

## 빌바오 선언문

2018년 10월3일 빌바오, 스페인

우리, 84개국에서 모인 2018 빌바오 국제사회적경제포럼 참석자 1,700명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며 인간과 지구에 기여하는 경제 발전이 민주주의, 사회정의, 연대, 다양성과 평화의 원칙에 기반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 배경

오늘날의 도전과제들은 그 발전의 규모와 속도의 측면에서 전례가 없으며, 파괴적인 기술과 인공지능, 기후변화, 세계화와 이주난민 문제, 인구학적 변화는 현재의 발전 패러다임으로는 적응이 어렵다.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노동시장은 비정형적이고 불안정한 형태의 일자리를 양산하며, 새로운 일의 미래를 위한 전략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한다. 우리 도시와 지역사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보호와 모두를 위한 번영을 이루어 낼 정책혁신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할 때만 가능하다. 공공정책의 공동 수립과 수행은 오늘날 사회적경제의 근간을 이룬다.

용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Social Economy, SE)와 사회연대경제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SE)는 인간을 자본보다 중요시하고, 민주적 결정구조를 가지며, 환경을 고려하고, 공정한 거래를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한다.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나타나는 최근 추세에 따르면, 청년들이 이러한 가치와 원칙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그 성취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2030 지속 가능한 발전 의제의 성공적인 이행에 있어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지역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사회적경제와 사회연대경제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회복력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며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는 것은 UN 기관을 포함한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점차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많은 주체와 연대체들이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자료와 연구 등을 통해 지역의 노력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공유하려는 이 노력들은, 지역경제개발국제포럼 (World Forum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역화 (localization of SDGs) 온라인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사회적경제 및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약속

많은 중앙, 지방, 도시 정부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체계와 공공정책을 도입하여, 사회적경제와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그 지역과 시민의 수요에 맞는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참여 예산제, 지역 화폐, 연대 금융 체계 등을 지원하고,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가진 공공구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와 법률, 정책은 지역의 실천을 나누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변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가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구조적인 변화의 촉매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가치와 경쟁력

사회적경제 및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조직들은 실행가능하고 효율적이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수익을 조직과 조직이 속한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속해서 미션을 수행해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주변의 환경과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항상 고려해야 하며 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경제와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은 사회정의의 가치에 기반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노동할 권리를 존중한다. 자주성과 투명성의 가치가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는 모든 과정에 담겨 있다. 민주적인 결정구조와 조직 운영은 이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치와 원칙은 소수민족 및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과 청년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을 강조하며, 이는 연대와 신뢰를 기초로 한 평화롭고 회복력 있는 사회의 기틀이 된다.

### 결의안

2016 몬트리올 선언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적경제 및 사회연대경제 주체, 지방 및 도시정부, 연대체 및 파트너들은 아래 내용을 결의한다;

- 공공정책의 공동수립 및 실행을 지속하며 우리 도시와 공동체가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심역할을 계속한다.
- 시민사회의 역량과 경험을 모으고 조율할 수 있는 과정과 포럼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적,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사회적경제와 사회연대경제의 성공사례와 경험을 찾아내고 그 성과를 측정하는 노력을 통해 모든 층위의 주체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퍼뜨리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 유엔의 회원국들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결의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 지역간 협력을 늘리고 (도시와 농촌 간 협력 포함) 모든 층위의 정부 (중앙, 지방, 도시, 또한 국가간)간의 정책 일관성을 높인다.
- 사회적경제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윤리적 금융 및 대안 금융, 연대 금융 및 지역 금고 등을 동원한다.
- 보다 생태적이며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생산-소비 사이클에서 더 투명한 환경적 실천을 장려한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 및 사회연대경제 주체,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유엔 및 국제기구 및 연대체) 각자의 역할과 책임 및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회복력이 높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본 결의안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GSEF2018 성평등과 사회적경제, 포용적인 경제와 사회 모델을 위한 선언문

2018년 10월3일 빌바오, 스페인

2018년 3월 8일, 전 세계 수천 명의 여성들이 전례 없는 총파업을 실시하였다. 전세계 여성들이 하던 일을 멈추면 세상이 흔들린다는 것을 사회에 보여주지 위한 시도로, 노동 문제 이외에도 돌봄 서비스와 소비 분야도 큰 타격을 받았다.

이번 총파업을 통해 나타난 성평등 보장의 시급성과 여성의 삶에 가해지는 다양한 종류의 폭력을 증식하라는 항의에 대중들도 시위로 동참하였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에서처럼 빌바오에서도 여성, 남성 모두 한 목소리로 성불평등을 끝내라 외치며 거리를 메웠다.

사회적경제는 그 사업과 조직 모델에서 성평등의 가치를 중심에 두기에 이러한 주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성평등과 폭력증식에 대한 선언은 단순히 의지를 담은 것만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극복해 온 실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평등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매일 겪고 내려야 하는 결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도전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은 느끼지도 못한 채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는 성 역학관계 때문에 발생한다. 동등한 기회 제공과 평등을 사회적경제의 기본적인 가치로 삼고, 모든 사람에게 중심을 둔 경제적, 전문적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연대, 협력, 민주주의는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로, 진정한 포용적인 경제 모델이 되기 위해서 성평등의 가치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야만 한다.

또한, 여성과 남성간의 완전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분야로부터 핵심가치에 기반하여 중요한 움직임들을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는 보다 포용적인 고용시장을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좋은 그리고 존중 받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며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발전 모델을 추구한다.
- 돌봄의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생산과 재생산의 모든 과정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업무 과정을 전환한다.
- 성폭력이 없는 조직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규정과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

- 급여 격차 및 유리 천정을 없애고 의사결정 수준의 단계에 여성을 참여시키도록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 방식을 개선한다.
- 사회적경제를 우리 미래 도시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포용적인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성평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학습을 통해, 사회적경제 내부와 외부 등 모든 필요한 공간에서 인식을 제고하고 비판적 각성을 요구한다.

사회적경제는 성평등을 존중하고, 공정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참여적 경제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 GSEF2018 청년선언문

2018년 10월3일 빌바오, 스페인

### 청년의 비전

우리는 좋은 일자리가 착취적인 노동 현실을 바꾸고, 우리가 마주한 다양한 위기를 타개할 강력한 도구라 믿는다. 우리는 시민이자, 학생이고,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이며, 호기심 많은 모험가이고, 부모이자 활동가이며, 협동조합주의자이자 체인지메이커이며 혹은 기업가이다 - 그 무엇이든 불러도 좋다. 그러나 우리는 평등의 원칙과 가치, 의미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안정, 동일한 임금, 나를 표현하고 사회의 이익을 위해 나의 기술을 사용하는 삶, 동등한 주인으로서의 권한, 나의 일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민주적인 권리와 참여의 문화에 동의하며 함께 모였다.

기존의 방식은 이미 실패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미래를 함께 창조하기 위한 의미 있고, 포용적이며, 중요한 이 운동을 탐구하고 다시 상상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서로가 있고, 또한 보다 넓은 연대의 움직임이 있다. 우리는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연대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소셜벤처를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로 삼아 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자 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하고, 우리의 이야기와 지식과 자원을 공유할 기회를 원한다. 우리에게 함께 모이고, 더 깊이 탐구하며, 높은 목표를 가지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할 공간이 필요하다.

### 제언

우리는 청년의 공간과 참여가 단순히 운동의 일부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사회연대경제에 있어 핵심 이해당사자로서, "청년"은 하나의 이슈가 아니며 그 자체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청년은 자신의 프로젝트와 의견, 그리고 모두를 위한 비전을 가진 주체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만의 청년들만이 GSEF2018 포럼에 참석했다. 사회연대경제와 GSEF가 청년들을 더 포용하고, 청년들에게 매력적일수록, 그 구조 속에서 청년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사회연대경제와 GSEF가 연사, 대변인, 행사 참석자로서 청년의 참여도를 높이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믿는다. 참가자의 연령 데이터를 수집하여 35세 미만 참가자가 35%이상 참여하도록 한다는 등의 양적 목표를 정하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주 간과되는 25세 미만 '더 어린 청년'의 참여 또한 목표를 세워 장려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국제적 운동에 청년이 함께 하기 위해서 내부의 목소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GSEF2020에서 세계의 청년 리더들의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프로그램 안에 이들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들의 전체 세션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회의에서 청년 리더들의 국제 네트워크

크가 생겨나 포럼 이전과 포럼들 사이의 GSEF의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또한 국가적/지역적 사회적경제 단체/기관들이 소속 청년들에게 공간과 권한을 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회연대경제로부터 이익을 얻고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이를 구현하는 청년들의 다수가 남반구에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운동에서 그들이 특히 잘 대표되지 못하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청년들이 국제 행사에 접근할 때 큰 장벽을 마주하게 되는데 대하여, 향후 GSEF를 비롯한 사회연대경제의 국제 네트워크에서는 청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할 각별한 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

**Tel** +82 [0]2 352-4208

**Fax** +82 [0]2 760-7128

**E-mail** [gsef@gsef-net.org](mailto:gsef@gsef-net.org)

**Web** [www.gsef-net.org](http://www.gsef-net.org)